미술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생들은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감상능력을 높일뿐아니라 미술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요구와 방도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술은 인간생활을 아름답고 즐겁게 해주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예술이다. 그것은 미술이 우리들이 쓰는 만년필과 같은 작은 물건으로부터 자동차, 비행기에 이르는 큰 물건들을 쓸모있고 보기 좋게 만들며 옷차림과 몸단장을 문화적으로 하고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기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꽃펴날수록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앞날의 주인답게 생활을 문화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릴줄도 알아야 한다. 미술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해도 미술적으로 표현할줄 모르면 소용이 없다.

평가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창조하기는 헐치 않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들가에 피여난 갖가지 고운 꽃들과 나서 자란 정든 고향산천의 아름다움,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는 사람들의 영웅적투쟁에서 느낀 감정을 그림이나 조각, 붓글씨로 표현하는 원칙적인 요구와 방도를 잘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창작된 미술작품을 감상할줄도 알아야 한다. 모든 미술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고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한다.

그런데 미술작품을 감상할줄 모르면 작품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지식을 받아들일수 없고 교양받을수도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미술작품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깊이있게 파보면서 정서도 키우고 즐거움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미술과목에서는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감상능력을 높이고 미술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요구와 방도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미술교과서는 회화, 조각, 출판미술, 도안, 공예, 서예, 감상, 미술지식교재들로 내용이 꾸려져있다. 학생들은 회화교재를 통하여 정물화, 화조화, 풍경화, 인물화, 주제화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조각교재를 통하여 진흙이나 석고, 돌과 같은 재료로 인물을 빚는 방법을 배우며 출판미술교재를 통하여 여러가지 판화를 새기고 선전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도안교재를 통해서는 무늬그리기, 도안글씨쓰기, 평면 및 립체도안방법을 배우고 공예교재에서는 여러가지 재료로 물건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서예교재에서는 여러가지 붓글씨 쓰는 방법을, 감상과 지식교재에서는 미술작품을 보는 방법과 미술에 대한 일반적지식을 배우게 된다.

회 화

정 물 화

정물화란 그릇에 담긴 파일이나 남새, 병에 꽂힌 꽃가지, 접시우의 물고기, 생활도구 등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정물화그리기에서는 보는 방향과 높이를 달리해보면서 구도가 좋게 생각되는 자리를 잡아 그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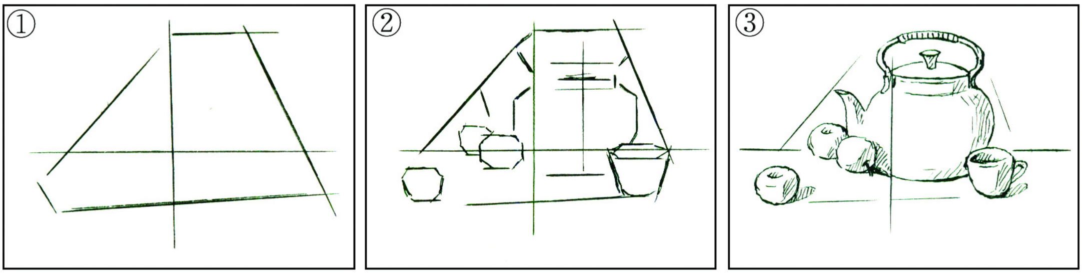
구도잡기에서는 물체들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크기, 색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꽃병과 꽃(수채화)

형태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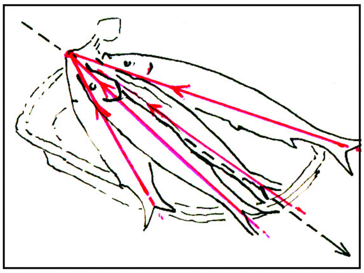
형태그리기에서는 물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선으로 표시하고 대체적인 형태를 잡은 다음 점차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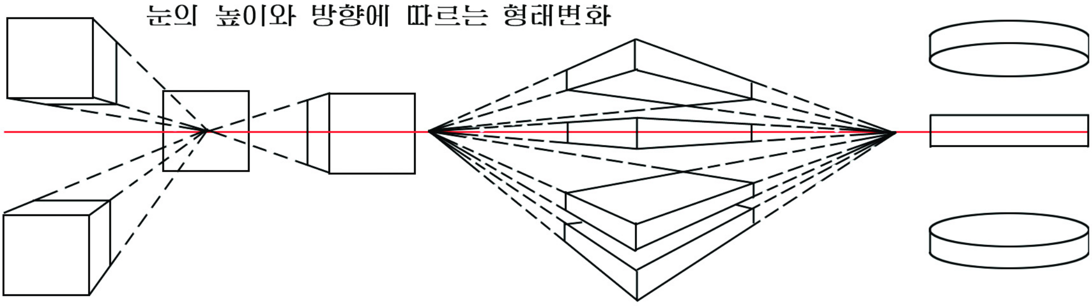
정물(소묘)

《청어》그림에서는 대각선 구도로 그림으로써 네마리의 물고기가 화면밖으로 뻗어나가는 듯 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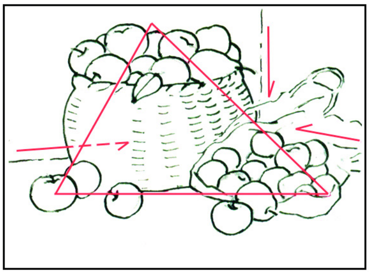
청어(유화 1965년) 정유성 작



눈의 높이와 방향에 따르는 형태변화



파일(유화 1985년) 유병석 작



우의 그림은 삼각형구도로 화면의 안정감을 주며 파일과 바구니를 실물처럼 잘 그려 먹음직스럽고 쥐면 손에 잡힐듯 생동하다.



남새(수채화)



왕찔레꽃(유화 1983년) 한상익 작



물고기와 국화
(조선화 1967년) 최도렬 작

유화 《왕찔레꽃》에서는 배경과 꽃병을 짙은 색으로 그리고 꽃은 흰색으로 그려 강한 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화면에서 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조선화 《물고기와 국화》에서는 단붓질로 나무가지에 걸어놓은 한마리의 물고기와 몇송이의 국화를 그리고 배경을 생략하였지만 구도가 째이고 대상의 특징이 잘 표현되였다.

정물화채색순서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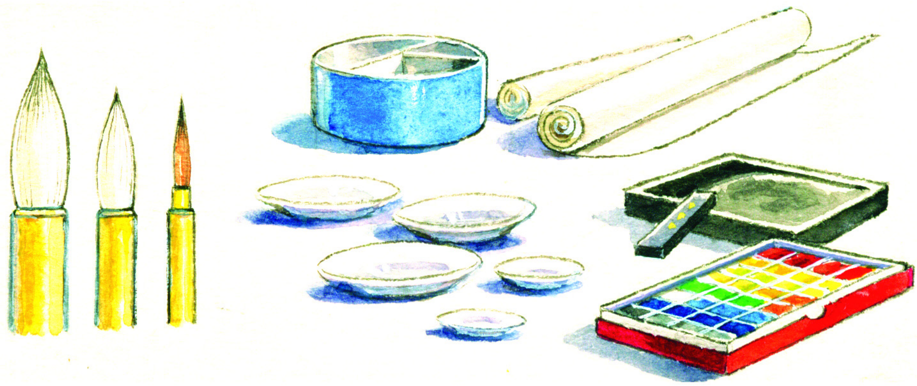
화 조 화

꽃이나 새를 위주로 그린 그림을 **화조화**라고 한다.



김일성화(조선화)

조선화의 재료와 도구



조선화는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함께 우리 인민들이 즐겨그려온 전통적인 그림 형식이다. 그러므로 조선화에는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민족적특성과 생활감정, 정서가 잘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화가 가지고있는 우수성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킬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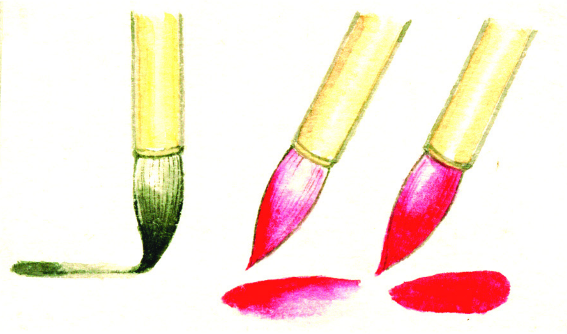


진달래(조선화 1965년) 리석호 작



모란(부분 조선화 1976년) 정종여 작

붓에 색묻히기와 붓질방법



붓에 색 묻히는 방법과 붓질방법에 따라 묘한 효과가 나타난다.

○ 붓을 세워 색을 묻혀 선을 그으면 진한 색으로부터 점차 연한색의 선이 그어진다.

○ 붓을 눕혀 색을 묻힌 다음 세움붓질을 하면 한쪽 기슭이 진한 선이 그어진다.

○ 색갈이나 질음새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면 고루묻히기방법으로 색을 올리면 된다.

아름다운 꽃을 몰골법으로 그린다.
대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고 대담하게 붓질을 하여야 한다.



몰골법으로 그리는 순서와 방법





장미(조선화 1985년) 리경남 작



게(부분 조선화 19세기) 장승업 작

장승업은 19세기말에 활동한 재능있는 화가이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머슴으로 일하면서 그림그리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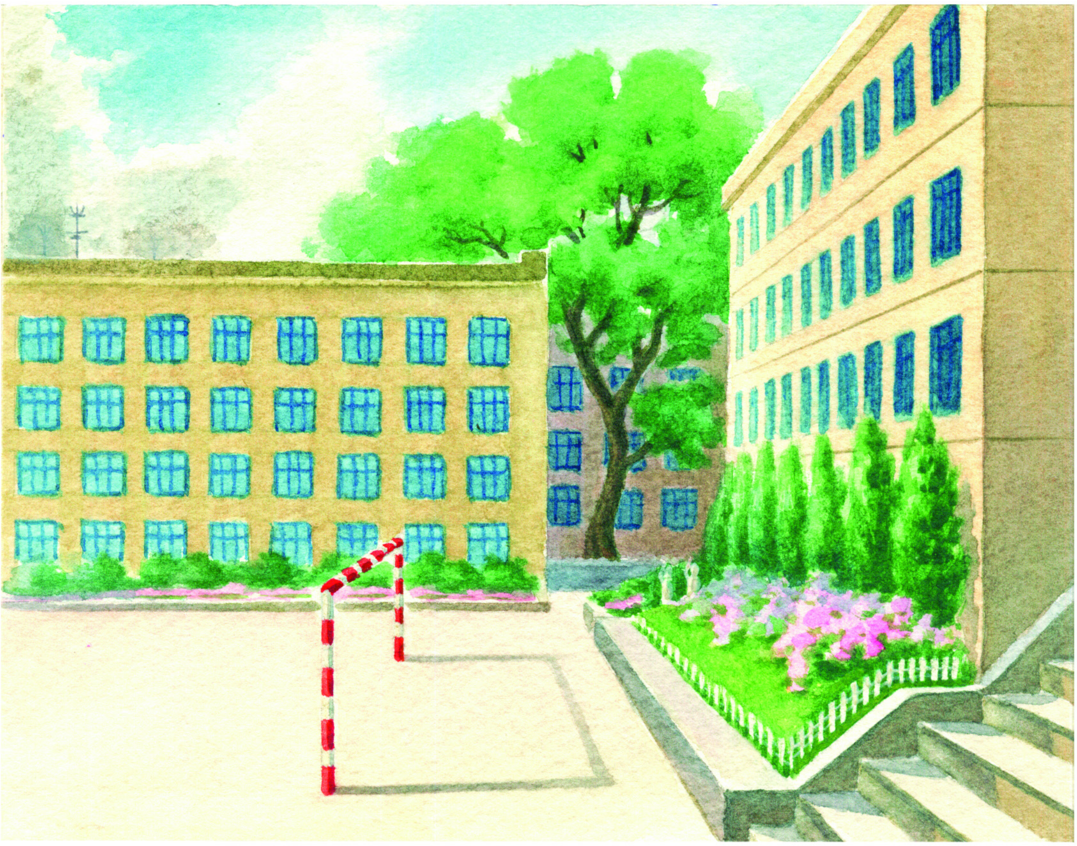
그는 인물화, 화조화, 풍경화, 정물화에서 특기를 보여주었다.

대표작으로 《련못가의 물촉새》, 《게》, 《매》 등을 들수 있다.

풍 경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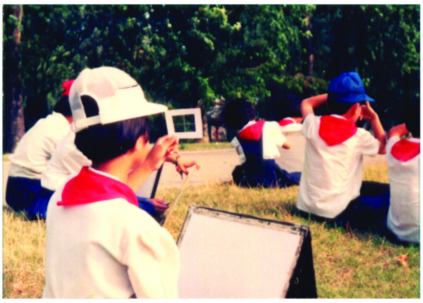
갈은 풍경도 방향과 거리에 따라 형태와 색이 달라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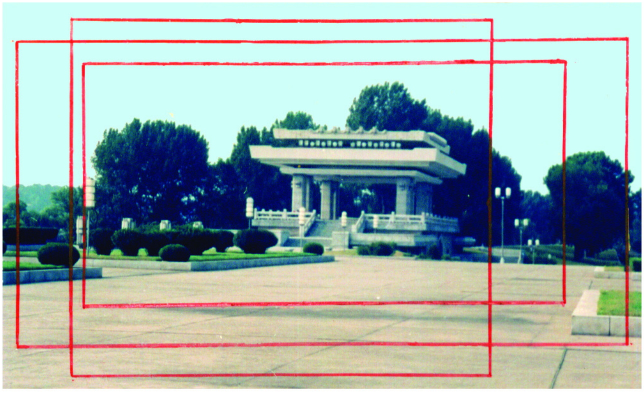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리기 좋은 자리를 잡고 보는 위치에 따라 형태와 색이 변하는 관계를 잘 관찰하여 공간감, 거리감이 느껴지게 그려야 한다.



우리 학교 정원에서(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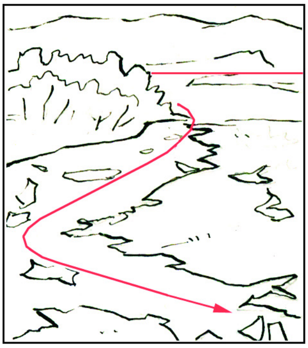
구도지로 자연풍경을 내다보면 풍경화의 구도를 쉽게 잡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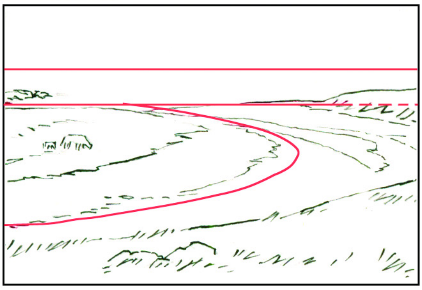
갈은 풍경에서도 구도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잡을수 있다.

풍경화구도에서 공간표현의 여러 형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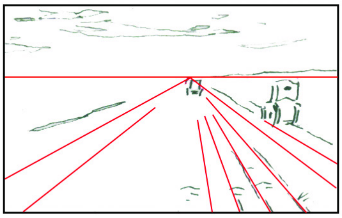
얼음 풀리는 대동강(유화 1965년) 리춘언 작



해칠보의 기슭(유화 1986년) 림렬 작



풍경화구도에서 수평선 또는 지평선방향으로 그어지는 선의 특징에 따라 공간느낌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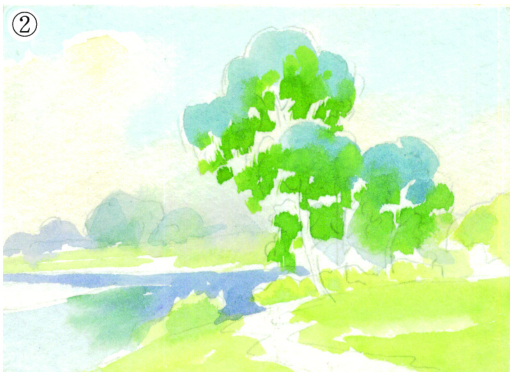
백두삼천리벌(유화 1980년) 리영학 작



나무(수채화)

풍경 그리는 순차와 방법







옥류교의 아침(유화 1977년) 최청활 작

《옥류교의 아침》에서는 원근화법을 적용하여 화면의 깊이와 아침의 색변화를 잘 표현하였다.

① 형태그리기에서는 연필로 대상의 형태를 크게 잡아준다.
② 초벌색칠하기에서는 매 대상의 기본색을 찾아 연하게 칠하여준다.
③ 재벌색칠하기에서는 명암에 따라 색을 덧칠하면서 덩어리로 빚어준다.
④ 완성하기에서는 세부를 그리면서 강조와 생략으로 전체 화면을 통일시킨다.





각이한 기법에 따르는 풍경화

《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 《변모된 락랑벌》, 《질은 록음아래서》들은 조선화로, 《성균관의 가을》은 유화로, 《풍년든 농장벌》은 수채화로 형상한 풍경화작품들이다.



백두산천지의 붉은 노을(조선화 1998년) 정영만외 5명 작



풍년든 농장벌(수채화)



변모된 락랑벌(조선화 1992년) 리동남 작



성균관의 가을(유화 1992년) 황태년 작



짙은 록음아래서(조선화 18세기) 리인문 작

리인문은 18세기 우리 나라의 대표적화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주제를 잡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결부하여 잘 그렸다.

대표작으로는 풍경화 《강산은 끝없어라》, 《짙은 록음아래서》, 인물화 《배사공》 등을 들수 있다.

인 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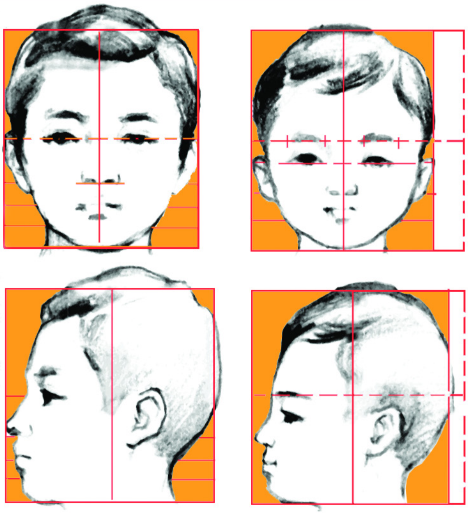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생김새가 같지 않으며 성격도 다르다.

인물화에서는 얼굴의 형태적특징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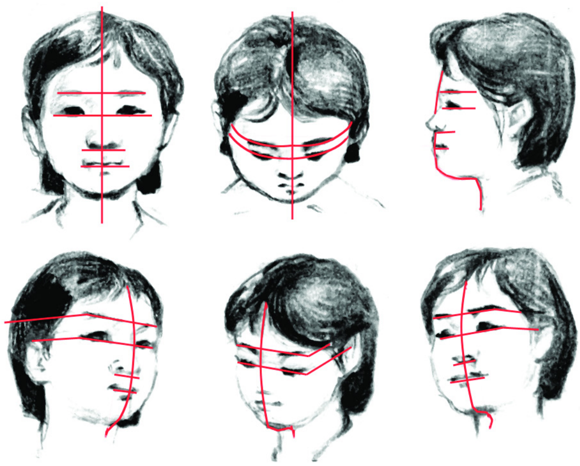


우리 동무(수채화)

얼굴비례의 일반적특징



여러 각도에서 본 얼굴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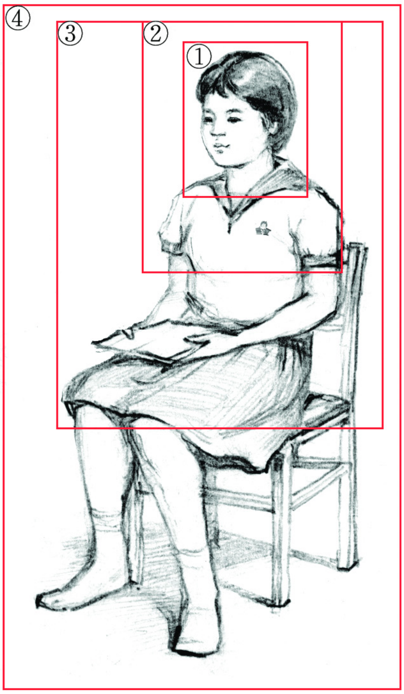


얼굴부분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려주고 옷과 목도리, 배경은 대담하게 크게 처리함으로써 얼굴에 눈길이 쏠리게 하였다.



습작(조선화)

인물화의 종류



① 머리상

② 가슴상

③ 반신상

④ 전신상

얼굴소묘





방목공처녀(유화 1988년) 장명룡 작

미소띤 밝은 얼굴에 허리띠를 가쁜히 동여매고 풀밭에 단정히 앉아있는 방목공처녀.

흰양떼 뛰노는 푸른 풀밭과 처녀의 분홍빛저고리의 대조는 화면에서 밝고 신선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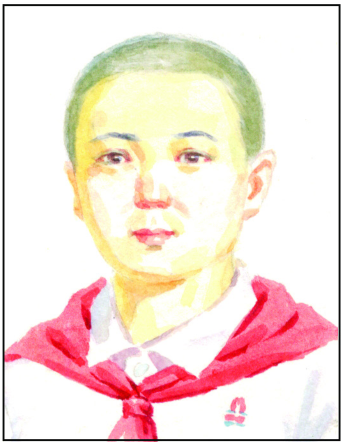
화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로동이 곧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된 내 나라,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얼굴색칠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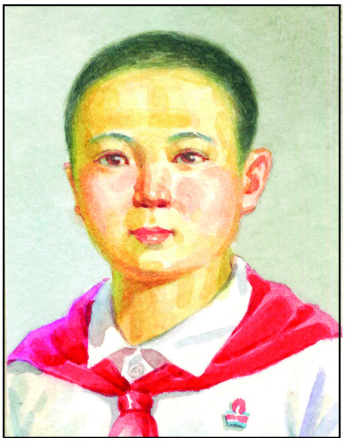
초벌색칠하기



재벌색칠하기



세부그리기 및 완성





인물얼굴(조선화)

안악3호무덤 남자주인공(4세기)



인물은 먼 옛날부터 그림의 중요한 묘사대상으로 되여왔다. 옛날 고국원왕의 무덤인 안악3호무덤만 보더라도 여기에 그려진 인물화는 벌써 초상화, 생활화로 구분되여있으며 그 묘사수준이 상당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물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물화의 오랜 력사를 말하여준다.

주 제 화

주제화는 인간생활을 위주로 하면서 일정한 주제사상적내용을 담은 그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들에게는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뜻깊은 일들이 많다. 그가운데서 인상깊은 장면을 주제화로 그려야 한다.

책에서 보았거나 들은 이야기도 상상화로 그릴수 있다.

무엇을 그리겠다는것이 정해지면 그 모습을 머리속에 똑똑히 새겨보고 사람들의 움직임과 배치, 환경, 색갈 등을 연구하여 연필로 간단히 그려보면서 구상한것을 무르익혀야 한다.

감동적인 의의있는 일들은 격동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속에도 많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속에서 주제를 찾는 눈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림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한 첫 개학날에 집에서 정성껏 피운 진달래꽃을 교실에 갖다놓는 한 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을 소박하게 그렸다.

4월초하루(수채화)



열중(조선화 1984년) 우인택 작



약속한 시간(조선화 1983년) 김광남 작



우리의 소원은 통일(조선화)



머슴오누이(유화 1965년) 최인근, 박원실 작

《머슴오누이》는 머슴방의 희미한 등잔불밑에서 동생에게 짚신을 삼아주는 나어린 머슴오빠와 오빠가 삼아준 짚신을 신어보며 기뻐하는 누이동생을 통하여 지난날 모진 가난과 고생속에서도 혈육의 정을 간직하고 살아온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한다.



학급의 주인(수채화)

이 그림에는 청봉숙영지에서 구호나무정성사업을 하고있는 한 녀학생이 그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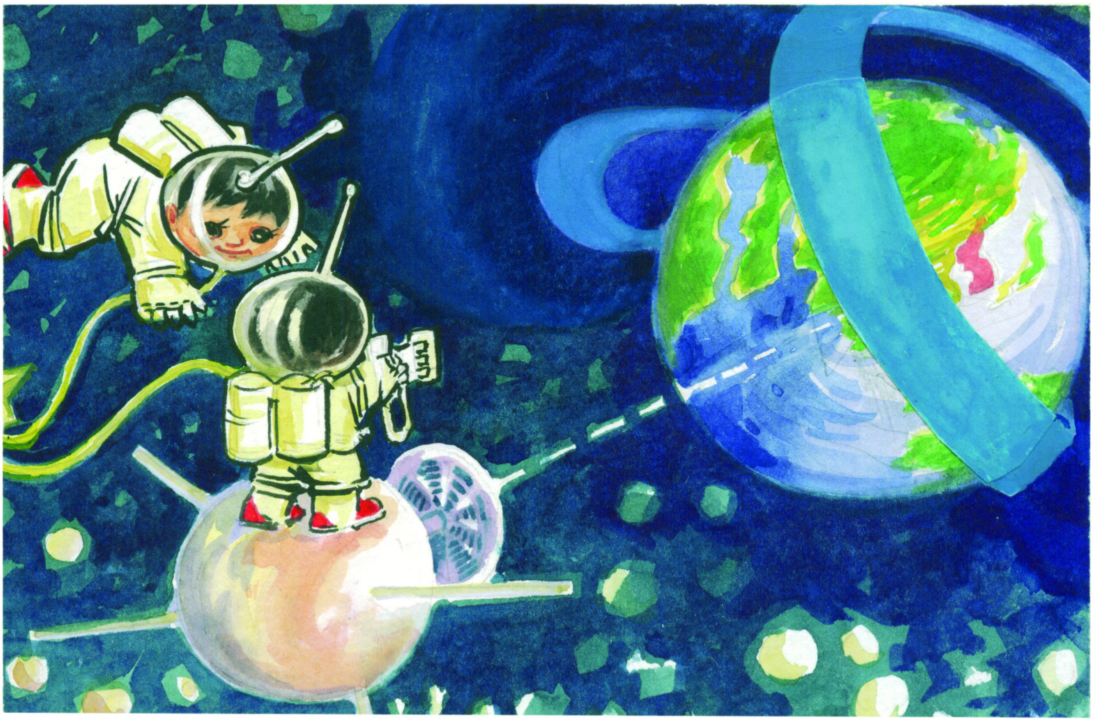
청봉의 아침(조선화 1979년) 강정호 작



글짓기(수채화)



신기한 매돌(수채화)



우주에서(수채화)

타작(조선화 18세기) 김홍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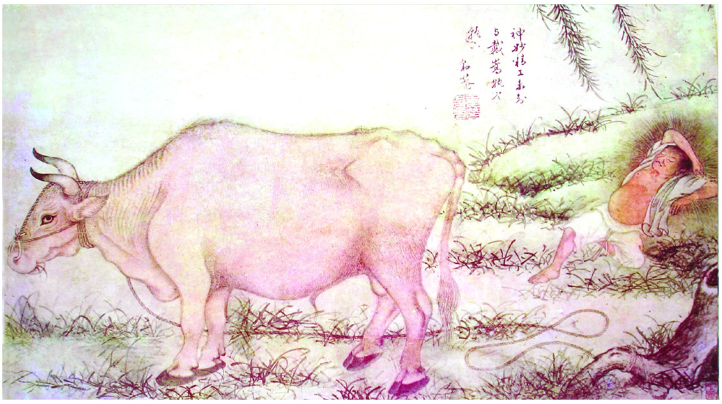


김홍도는 18세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화가이다. 어린 시절에 도화서의 화원이 된 그는 일생동안 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야장간》, 《집짓기》, 《춤》, 《씨름》, 《서당》, 《타작》 등의 풍속화들과 풍경화, 화조화 등을 들수 있다.

그는 자기의 풍속화작품들을 통하여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렸으며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였다.

소몰이군(조선화 18세기) 김두량 작



김두량은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회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화가이다.

그는 풍경화와 인물화를 잘 그려 이름을 날리였다.

대표작으로는 《소몰이군》, 《달빛》, 《개》 등을 들수 있다.



고구려사람들(조선화 1983년) 강신범 작

조 각

환 각

환각은 사방에서 볼수 있게 만든 조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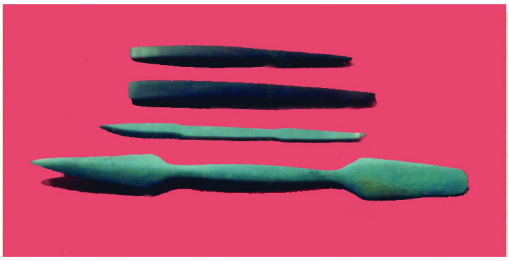
가슴상을 만드는데서는 대상과 똑같이 빚는데 주의를 돌리면서 감정까지 표현하여야 한다.

조각할 때에는 큰 면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로 보고 빚어야 하며 앞, 옆, 뒤를 동시에 관찰하면서 머리와 목, 목과 어깨와의 관계를 련계속에서 빚어야 한다.



맹세(소조)

조각칼



① 묘사대상을 연필로 그려보면서 형태를 파악한다.

② 심봉을 세우고 끈으로 감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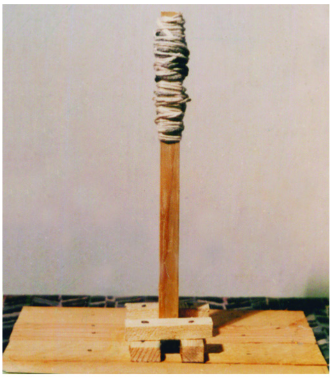
③ 심봉에 의거하여 초벌흙붙이기를 한다.

머리상조각의 순차

①



②



③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선생님
(석고조각 1994년) 윤명숙 작



항일혁명투사 김책선생님(동조각 1985년)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신념과 의지를 지켜싸운 리인모선생님의 오늘의 사상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항일의 나날에나 해방된 조국에서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팀없이 집행해나간 항일혁명투사의 모습이 잘 표현되였다.

④ 조각칼로 선을 그어 부분의 위치를 정한다.
⑤ 조각을 돌리면서 큰 형태를 만든다.
⑥ 조각칼로 세부묘사하여 완성한다.

소조는 흙으로 빚는 조각이다. 돌조각과 달리 속으로부터 겉으로 빚어나오면서 만든다.


④


⑤


⑥



나의 동무(소조)



아들(석고조각 1977년) 로익화 작



탐구(석고조각 1992년) 곽태영 작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동쪽부분 동조각 1967년) 집체작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량강도 혜산시 패궁정언덕에 보천보전투승리 30돐을 맞으며 세웠다. 탑의 앞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거룩한 영상을 모시고 중심축에 붉은 기발을 형상하였으며 이 기발의 좌우에 60여상의 인물군상을 배치하였다. 인물군상은 뒤로부터 앞으로 나오면서 점차 크게 형상하여 앞에서 보면 대오가 한결 길어보인다.

인물조각상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 조국해방의 성전에 나선 사람들의 성격이 다양하고 개성적인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준다.







석고소조방법에 대한 지식

석고를 진흙처럼 빚는 조각을 **석고소조**라고 한다.

석고소조에서는 심봉부터 잘 만들어야 한다. 심봉은 대상의 운동에 맞게 만들고 석고물이 잘 붙을수 있게 가는 쇠줄이나 노끈을 감아주어야 한다.

조각칼로 석고물을 바를 때에는 석고물이 흐르지 않도록 물기조절을 잘하여야 한다.

형태의 정리는 끌 또는 칼로 깎거나 줄칼로 다듬는 방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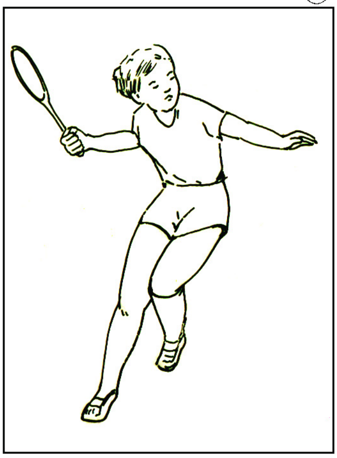


휘거선수(석고조각 1986년) 조히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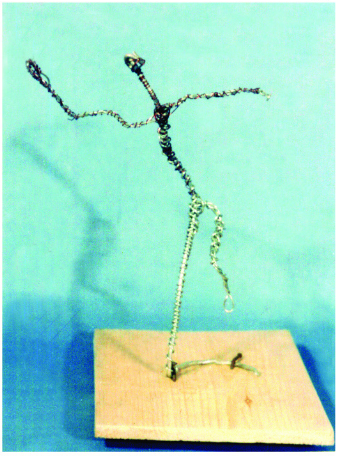
《휘거선수》에서는 폭이 크고 우아한 선수의 아름다운 동작을 잘 포착하여 운동감이 있고 립체가 뚜렷하게 표현되였다.

석고소조만들기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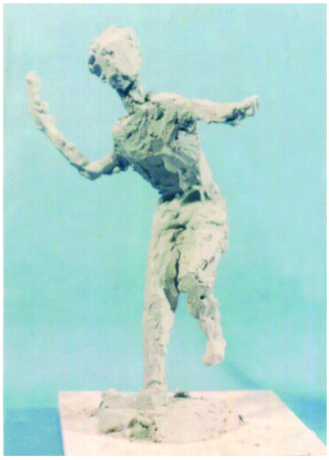
①



②



③





태권도(석고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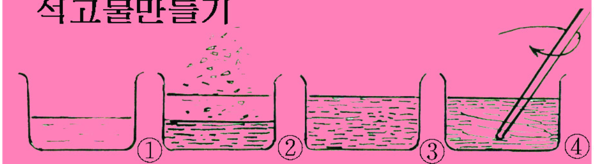


달리기(석고조각)

석고소조만들기

① 연필로 구상을 무르익힌다.
② 운동에 맞게 심봉을 만든다.
③ 몸, 머리, 다리, 팔의 순서로 석고물을 발라 대체적인 골격을 만든다.
④ 연필로 부분의 위치와 련계를 표시한다.
⑤ 조각칼이나 줄칼로 정리하면서 세부묘사를 진행한다.
⑥ 완성된 작품

석고물만들기



① 그릇에 물을 붓는다.
② 물에 석고가루를 뿌린다.
③ 석고가 물면까지 차면 뿌리기를 그친다. 뿌릴 때는 물을 휘젓지 말아야 한다.
④ 석고용칼로 천천히 휘젓는다. 도중에 석고를 더 넣지 말아야 한다.

④



⑤



⑥



동물조각에 대한 지식

동물을 기본묘사대상으로 만든 조각을 **동물조각**이라고 한다.

동물조각은 사람들의 사상교양과 문화정서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각상의 높이 14m
조각상의 길이 16m
책의 크기 1.3m×1m
전체 높이 46m

천리마동상(동조각 1961년) 집체작

천리마동상은 남이 한걸음을 달리면 열걸음, 백걸음, 천걸음으로 달려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기백을 표현한 기념비조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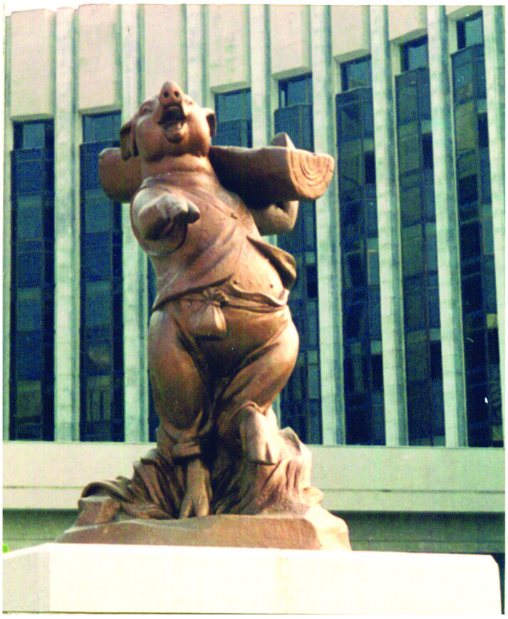
우리 나라 기념비조각의 새 시기를 열어놓은 천리마동상은 1961년 4월 15일 평양시 만수대언덕우에 세워졌다. 동상은 초안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완공되였다.

구름우로 달리는듯 하는 천리마에서는 형태가 어디서 보아도 끝없이 전진하고 비약하는 우리 인민의 기상이 잘 느껴진다. 활짝 편 날개의 거센 흐름과 운동감은 비상한 속도감을 더하여주고 풍만한 량감은 동상을 더욱 장엄하게 보이게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 광복거리에 세워진 수많은 동물조각들은 사람들을 고상한 정서세계에로 이끌어가고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의 면모를 조형예술적으로 더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출판미술

단색판화

한색으로 찍는 판화를 **단색판화**라고 한다.

판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재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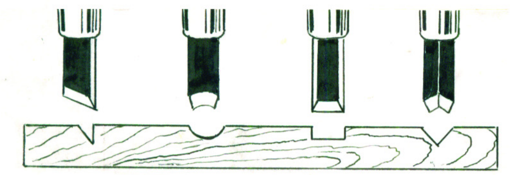
밑그림을 그릴 때는 흑백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하며 새길 때에는 찍은 다음의 효과까지 타산해야 한다.

판에 색올리기, 찍기 방법에 따라 찍은 효과가 다르므로 찍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



목란꽃(비닐판화)

판화칼과 그 자욱



《목란꽃》은 비닐판에 새겨서 찍은 판화이다.

이 판화에서는 꽃은 양각법을, 잎과 줄기는 음각법을 적용하였다.

작품에서 부분에 따라 어떤 판화칼을 썼는지 잘 관찰하여야 한다.

판화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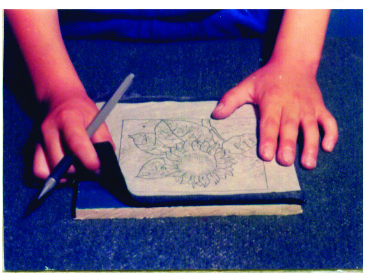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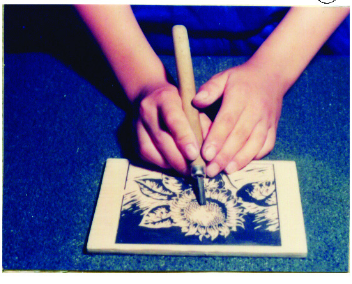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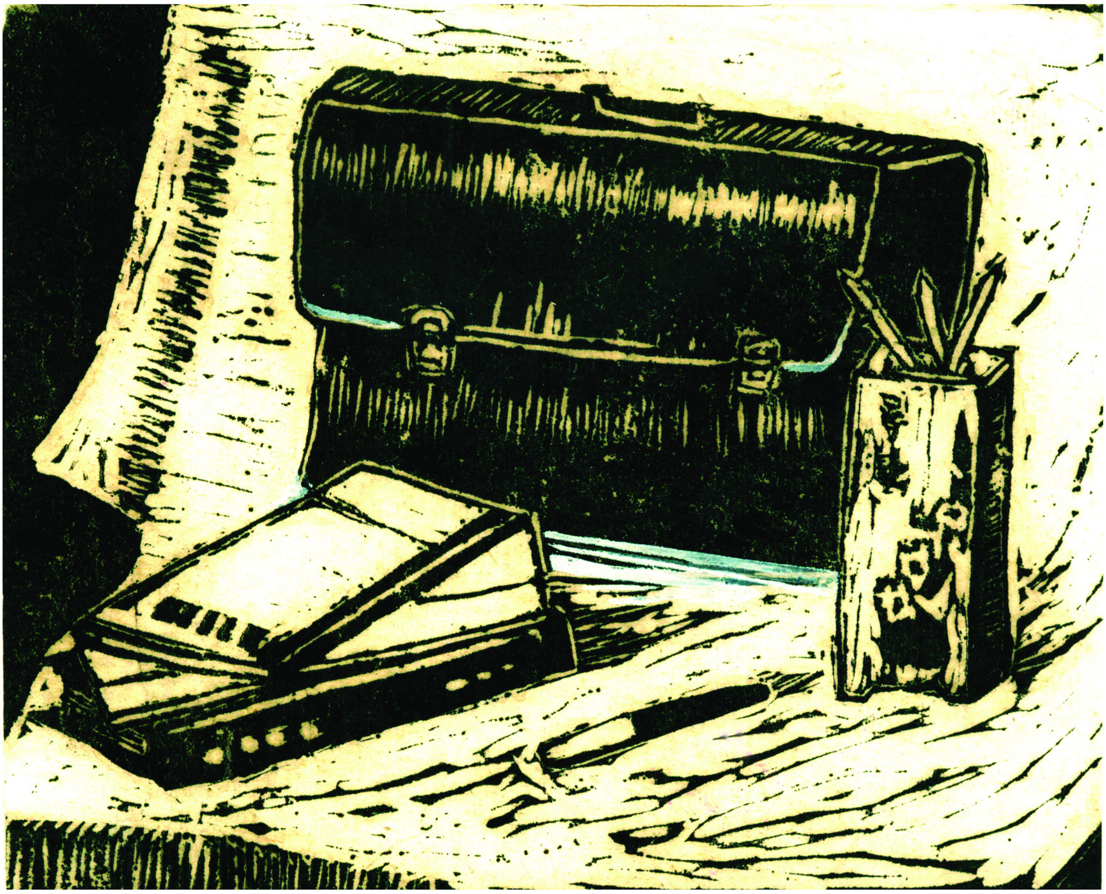
미술소조원(비닐판화)

① 연필로 대상을 보고 그려서 초안을 만든다.
② 초안에 기초하여 밝고 어두운 부분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색감으로 원안을 그린다.
③ 비치는 종이에 원안을 떠서 새김판우에 올린다.
④ 여러가지 판화칼을 쓰면서 그림을 새긴다.
⑤ 판에 색감을 올리고 종이를 놓은 다음 비비개로 비벼서 찍는다.
⑥ 잘 찍히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완성한다.

④


⑤


⑥

학용품(비닐판화)

조국의 영예를 안고(1987년) 김대영 작



판화에서 대표적인것은 나무판화이다.
판화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흑백대조가 명백한데 명암의 중간질음새를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판화로서의 매력을 안겨준다.



청춘들(나무판화 1992년) 김대홍, 김용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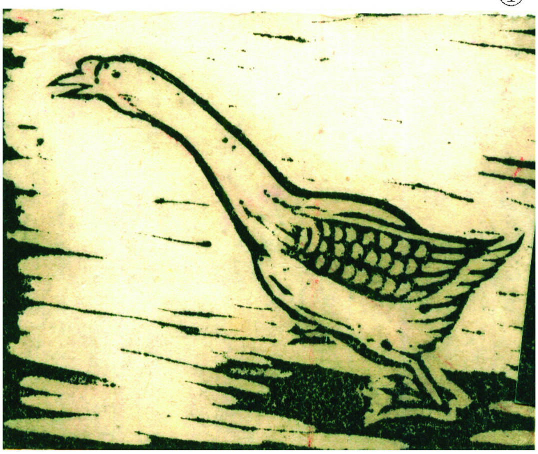
작품 《청춘들》에서는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청춘의 보람찬 삶을 빛내이기 위하여 대홍단으로 진출하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의 모습을 단색판화로 형상하였다. 작품을 보면 렬차가 속력을 내여 달리는 느낌이 강하게 안겨온다.

판화의 두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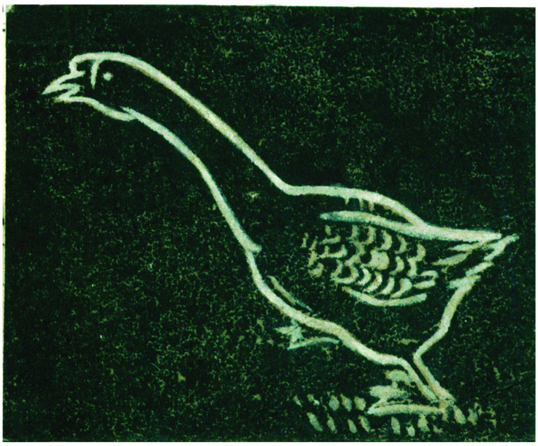
① **양각법:** 대상의 륜곽선만 검게 찍혀지게 하고 나머지부분은 희게 하는 방법이다.

② **음각법:** 대상의 륜곽선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검게 찍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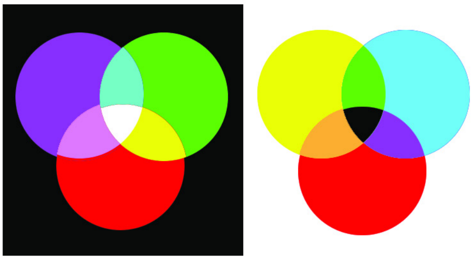


도 안

색채에 대한 지식

색채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색을 조화롭게 배렬할수 있다.

3원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을 **3원색**이라고 한다.

3원색에서 붉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감색, 노란색과 푸른색을 섞으면 풀색, 푸른색과 붉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이것을 **간색**이라고 한다.

3원색과 3간색을 비슷한 색갈의 순서로 놓으면 고리모양을 이루는데 이것을 **색고리**라고 한다.

색고리에서 맞서있는 색들은 보색관계를 이룬다.

보색이란 두 유채색을 섞어서 무채색이 되는 색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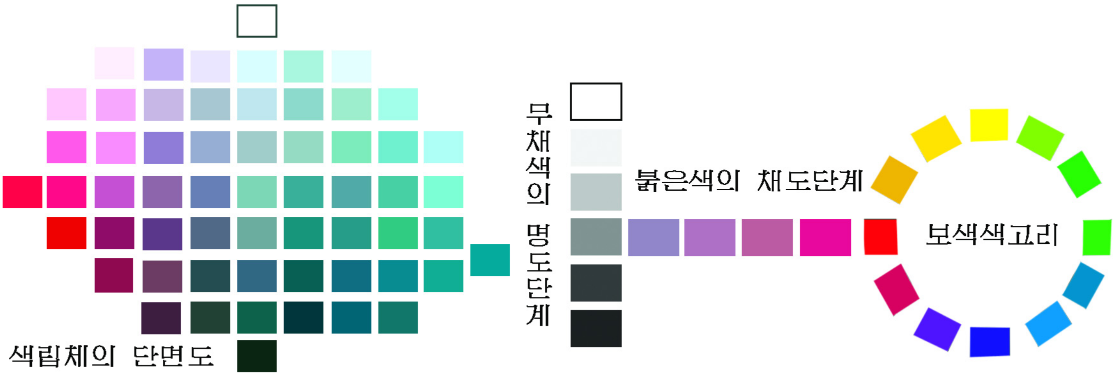
색의 분류

색은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눈다.

무채색은 흰색, 검은색, 회색들로서 색갈이 없는 색들이며 **유채색**은 붉은색, 감색, 노란색, 풀색, 푸른색 등과 같이 색갈이 있는 색이다.

색의 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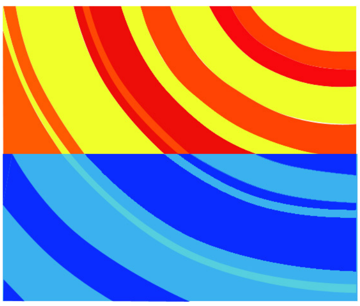
색은 색상(색모습), 명도(밝기), 채도(맑기)를 가진다. 이것을 **색의 3요소**라고 한다. 무채색은 명도만 가지고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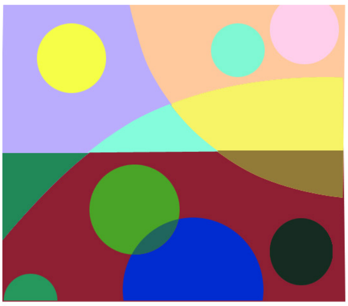
색의 느낌

색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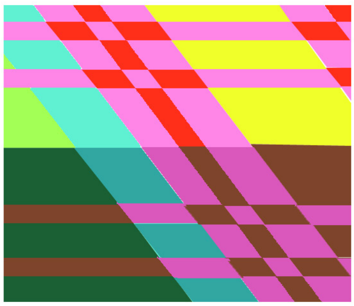
더운 느낌과 찬 느낌



가벼운 느낌과 무거운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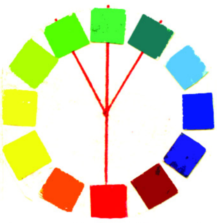
화려한 느낌과 침침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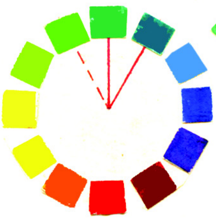


색채구성

색채구성이란 서로 다른 색들을 결합시켜 배치하는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색놓이라고 한다.

색놓이를 할 때에는 색의 3요소의 대비, 색느낌 등을 생각하면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대조색의 색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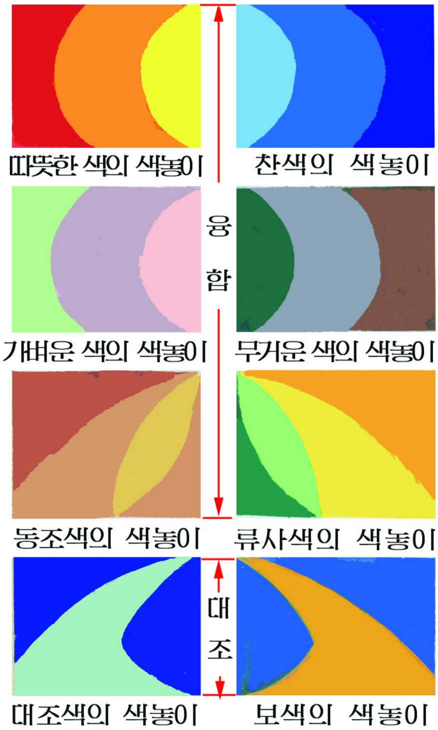

류사색의 색놓이


동조색의 색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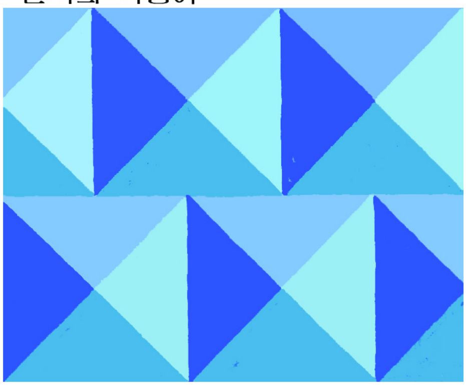
대조현상이 가장 심한 색놓이는 보색관계의 색놓이이다.

비슷한 색의 색놓이에서는 색상의 차이를, 같은 색의 색놓이에서는 명도의 차이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여러가지 색놓이그림들을 참고하면서 새롭게 특색있는 색놓이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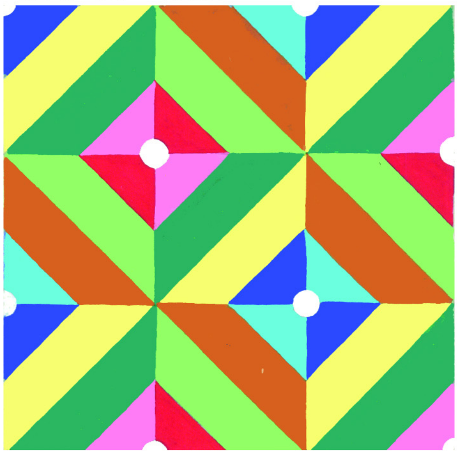
찬색의 색놓이



더운색의 색놓이



대조색의 색놓이



천무늬



평면구성

점,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배치하거나 면을 나누는 방법으로 률동이 있고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평면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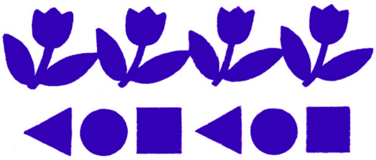
구성에서는 형태와 색의 효과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구성미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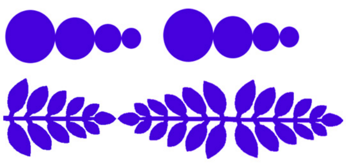
변화와 통일은 구성미를 이루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형태와 색의 변화가 없으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고 통일이 없으면 구성이 어수선해진다.

구성미의 요소로는 률동과 균형, 조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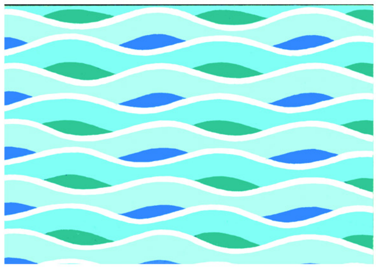
▨ **률동: 률동**이란 일정한 모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새를 말한다. 률동에는 모양이 되풀이되면서 흐름새를 이루는 반복률동과 점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점진적률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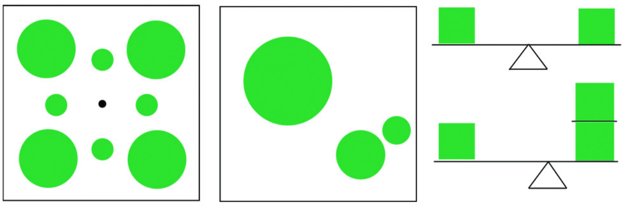
반복률동



점진적률동



▨ **균형: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롭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균형에는 대칭균형과 비대칭균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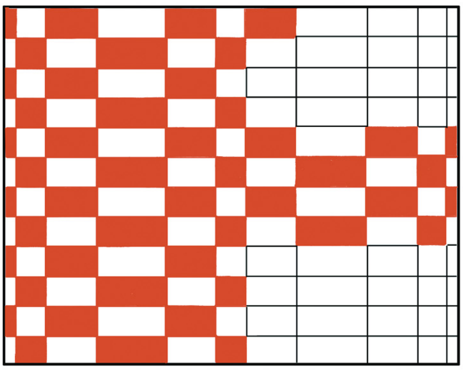


대칭균형과 비대칭균형

구성에서는 반드시 률동과 균형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조화: 조화**란 형태와 색들의 어울림을 말한다.

비례적분할에 의한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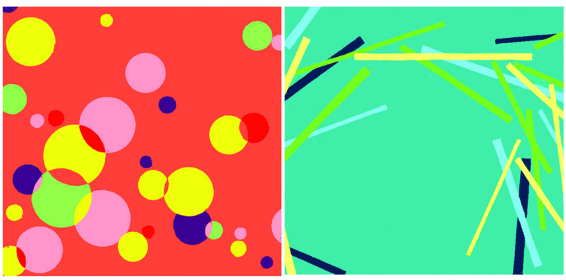


분할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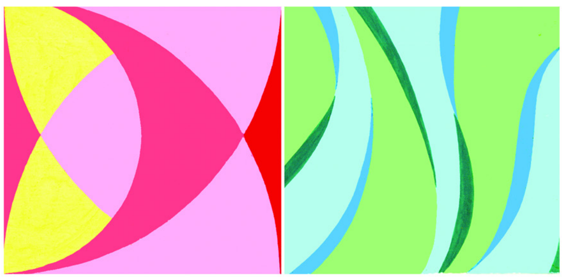
구성에는 분할에 의한 구성과 배치에 의한 구성이 있다.

분할에는 균형분할과 자유분할이 있으며 배치에는 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 서로 다른 모양을 규칙적이거나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배치에 의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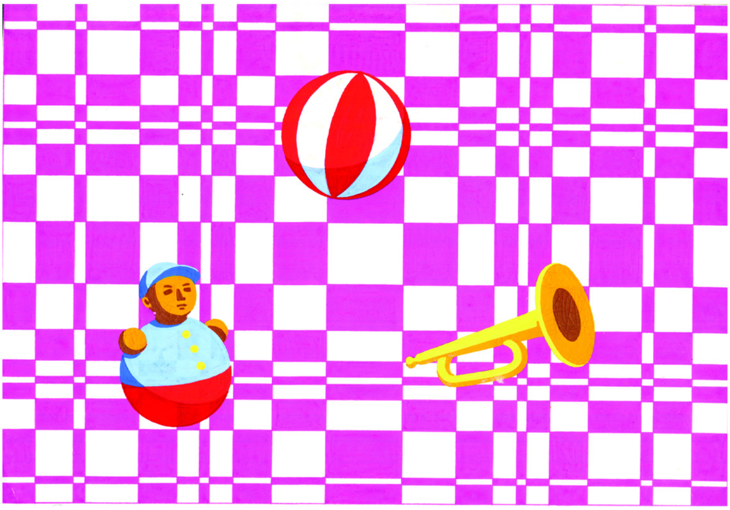


분할에 의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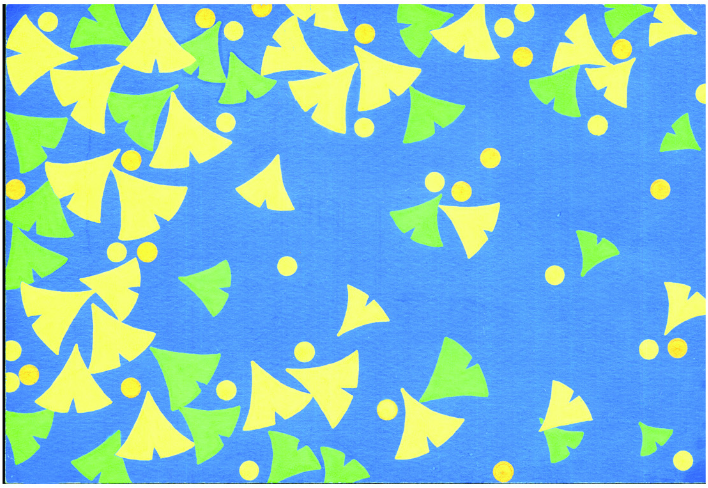
격자무늬는 평면을 비례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그렸다.

보라색과 흰색의 대조로 이루어진 무늬바탕에 곡선적인 풍선, 오뚜기, 나팔의 색장식을 하여 력점을 찍어줌으로써 변화가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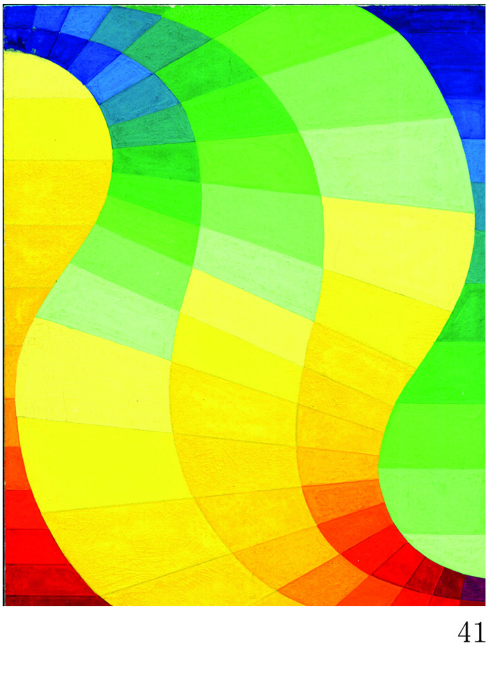
격자무늬

률동적배치에 의한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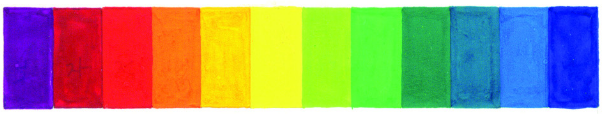


푸른색바탕에 잎무늬와 동그라미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색채에서 부드러운 대조를 줌으로써 구성에서 률동이 느껴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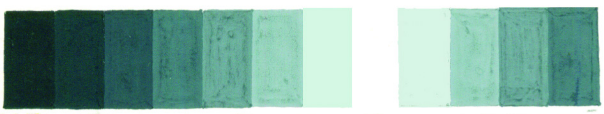
률동적분할에 의한 평면구성



색갈의 점진적률동



명암의 점진적률동



색고리의 색들을 직선으로 나란히 놓으면 색갈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점진적률동이 이루어지며 명암을 밝기의 순서로 놓아도 명암의 점진적률동이 구성된다.

글씨도안

글씨도안은 아름답고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매 글자의 모양, 글자와 글자사이의 이음, 전체의 균형미를 생각하면서 도안하여야 한다.

글씨도안은 보통 천리마글씨체와 3.1월간체, 장식글씨체로 한다. 매 글씨체들은 각기 자기의 독특한 맛이 있는것만큼 쓰는 내용과 목적에 맞게 글씨체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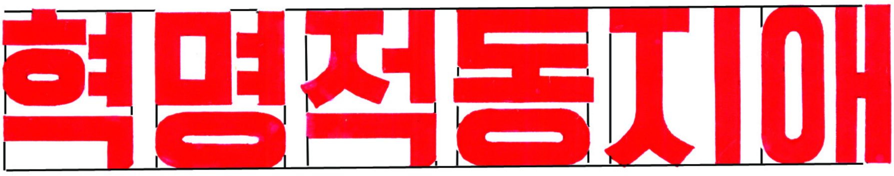
여러가지 도안글씨체

천리마글씨체도안



천리마글씨체는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같다. 그러나 《을》, 《를》, 《빼》자와 같이 같은 방향의 획들이 많은 경우에는 획을 가늘게 그어 조화시켜야 한다.

글자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너비보다 좀 길게 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높이와 폭을 같게 하거나 반대로 폭을 더 넓게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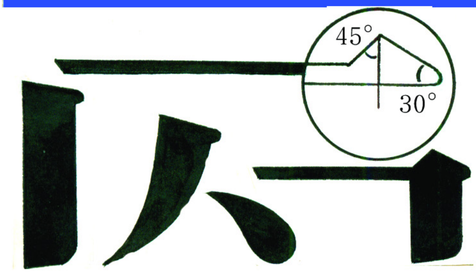


3.1월간체도안



3.1월간체는 획끝에 장식이 붙는것이 특징이다.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읽기 쉬워 도안글씨로 많이 쓰인다.

- ○ 건너긋는 획이 가늘고 내리긋는 획이 훨씬 굵다.
- ○ 건너긋는 획머리는 각을 이루며 획마무리에 독특한 형태의 매듭이 있다.
- ○ 내리긋는 획도 독특한 획머리와 꼬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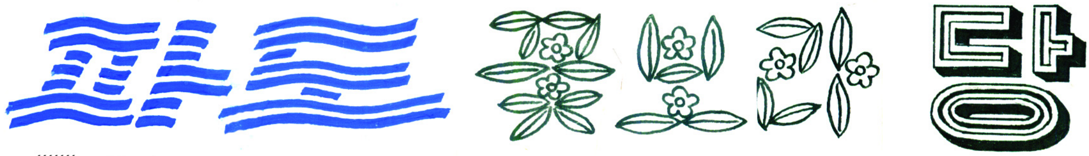


이 글씨체도안에서는 획굵기차이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획매듭과 획머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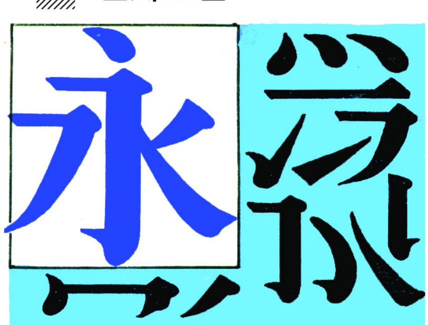


장식글씨체도안

이 글씨체는 글자에 여러가지 장식을 한 글씨체이다. 장식은 글의 내용에 따라 평면적으로 할수도 있고 립체적으로 할수도 있다. 또한 여러가지 색갈과 무늬, 그림으로 장식할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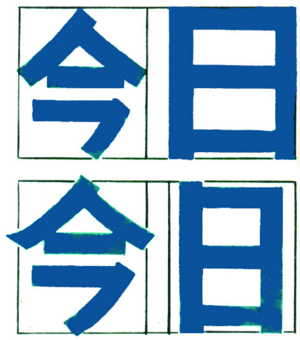
한자도안



3.1월간체의 여러가지 획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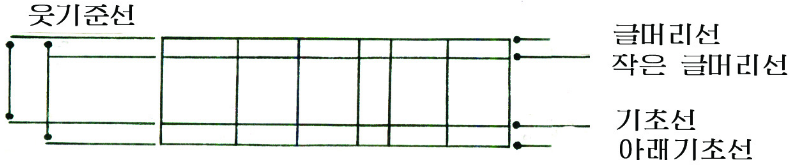
내려긋기와 가로긋기의 획을 같은 굵기로 하면서 끝을 약간 굵게 하여 형태를 잡는다.



두 글자의 크기가 같아 보이게 너비를 조절한다.

라틴글자와 수자도안







라틴글자는 글자폭이 서로 다르므로 우리 글자와 같이 칸을 정하면 안된다.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글자와 글자사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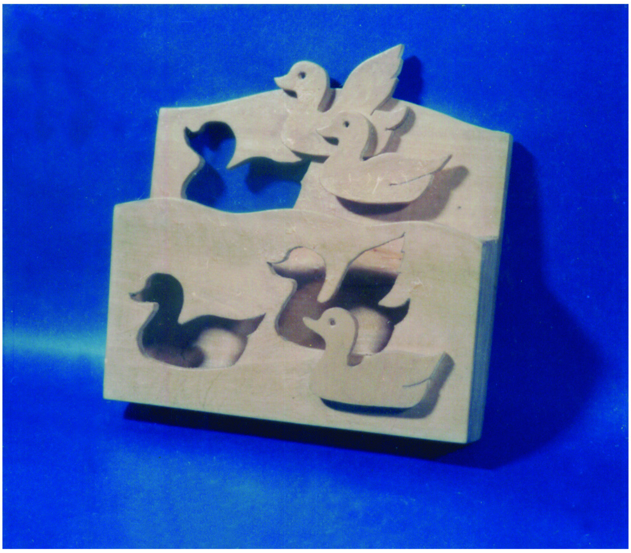
공 예

나무공예

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드는 공예를 **나무공예**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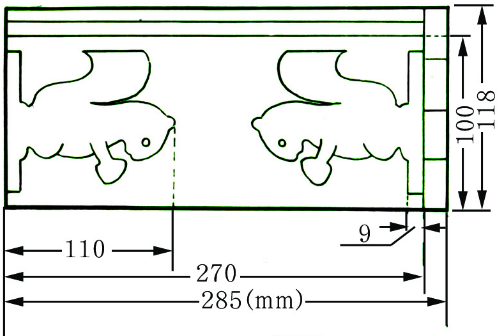
나무판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토막을 리용하여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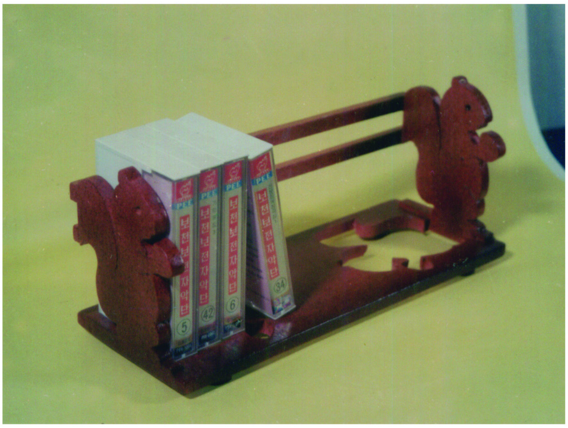
재료의 성질과 생김새에 맞게 쓰기 좋고 모양과 장식이 새로운 공예를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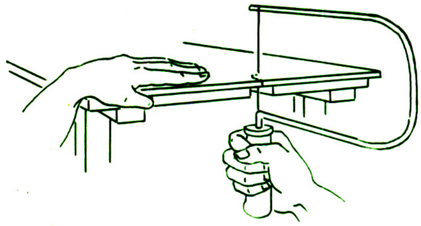
편지통(나무)

록음카세트꽂이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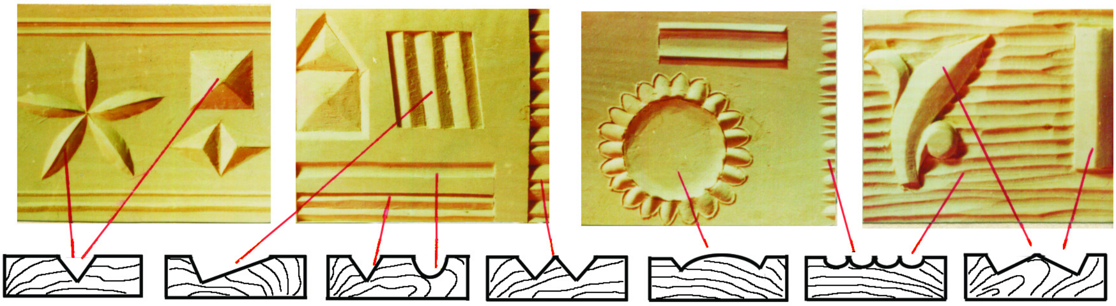


록음카세트꽂이(나무)



실톱작업방법

새김의 여러가지 자욱





벽걸이사진틀



필통(나무 1980년) 김하선 작



시간표



련꽃소반(18세기)

도장

나무의 걸면에 피막을 만들어 제품을 보호하거나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나무제품에는 대체로 도장을 한다.

도장에는 나무의 바탕색과 결을 살려내는 투명도장과 색의 아름다움을 내는 불투명도장이 있다.

도장재인 라크류는 신나에 풀어쓰며 니스류는 알콜이나 송탄유에 풀어쓴다. 그리고 에나멜은 송탄유나 휘발유, 뻬끼류는 보일유나 송탄유에 풀어쓴다.

종이공예

종이는 공예의 좋은 재료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나라 이전시기부터 종이공예가 발전하여왔다.

종이로 꽃이나 부채, 탈과 같은 아름답고 쓸모있는 공예품을 만든다.



김정일화

▨ 꽃

꽃만들기과정









① 꽃씨붙이기

② 꽃잎붙이기

③ 색띠감기

④ 꽃가지묶기



목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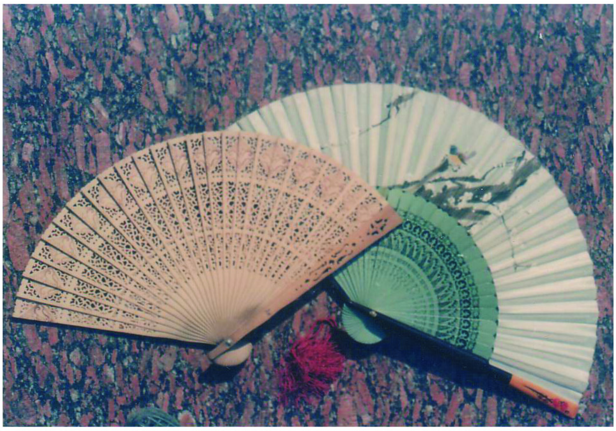
향패랭이꽃



란초꽃

부채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부채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가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색갈과 무늬, 장식그림이 고상하여 하나의 실용예술품으로 되여왔다.



부채

탈

짐승의 대가리나 사람의 머리로 형상한 탈을 만든다.

여러가지 탈





탈만들기방법

① 물에 적신 셀로판종이쪼박을 진흙으로 만든 원형의 전면에 붙인다.

②물에 적신 종이쪼박들을 셀로판종이에 붙인 다음 풀칠한 종이쪼박들을 여러번 겹붙인다.

③ 종이가 마르면 원형에서 떼여낸다.

④ 탈의 앞면에 색칠을 하고 장식도 한다.

①



②



③



④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만들어온 종이공예는 바구니, 비옷, 우산, 안경집, 함, 탈을 비롯하여 그 종류가 많으며 한 종류속에도 형태와 색갈, 장식이 다양하다.

서 예

뜻과 획의 예술인 **서예**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 나라들의 고유한 미술의 한 형식이다.

훌륭한 서예작품을 창작하려면 우선 우리 나라 붓글씨의 기본원리부터 배워야 한다.

붓글씨에는 바른글씨체, 반흘림체, 흘림체가 있다.



바른글씨체 반흘림체 흘림체

붓글씨쓰기자세와 붓쥐는 방법





붓글씨를 쓸 때에는 자세를 바로 가지고 붓을 제대로 쥐며 마음을 다잡은 다음 한자한자 써야 한다.

재료와 도구의 배치



글씨본, 종이, 벼루와 먹(또는 색감) 등을 질서있게 놓고 써야 한다.

우리 글의 기본획과 자모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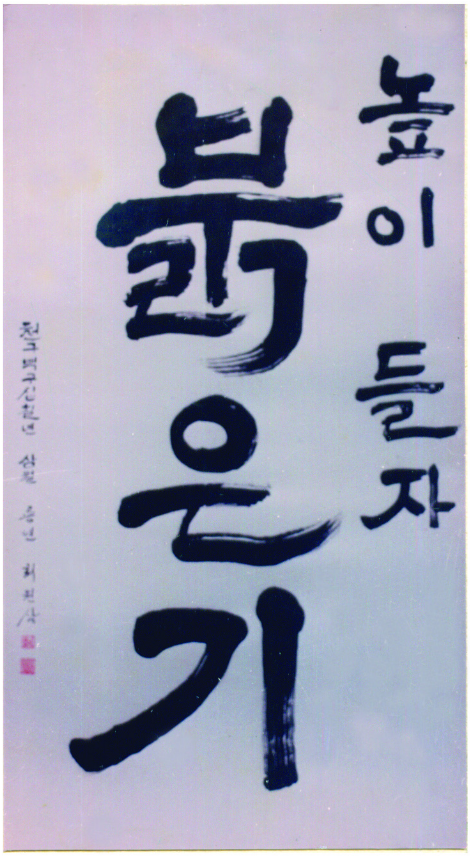


글자쓰기(청봉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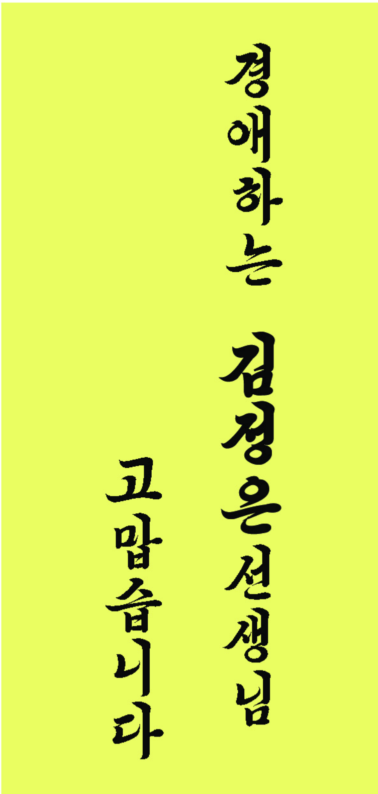
바른글씨체를 잘 써야 다른 글씨체도 쉽게 익힐수 있다.



글자안의 공백과 글자사이의 공간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높이 들자 붉은기 최원삼 작







감 상

행복(조선화)



조선화 《행복》은 미술가로서 저의 첫 작품입니다.

나는 새 세대로서 어른이 되여서야 내가 누리는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잠자는 어린 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화가 강정호

행복(조선화 1987년) 강정호 작

어린 머슴의 쪽잠(조선화)

조선화 《어린 머슴의 쪽잠》의 주인공은 어린시절의 저자신입니다.

소여물에 섞여있는 콩알이 그때에는 왜 그리 맛있었던지…

그리고 가시덤불길도 맨발로 걸어야 했던 그때의 쓰라리고 아프던 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나군 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느끼군 합니다.

화가 김수남



어린 머슴의 쪽잠(조선화 1982년) 김수남, 리상문 작

마가을의 추운 새벽이다. 지주집의 소외양간에서 어린 머슴이 여물을 끓여다 소에게 주고 강냉이짚더미에 엎디여 곤하게 자고있다. 홑옷을 걸치고 새벽추위에 몸을 꼬부린 불쌍한 어린 소년, 황소도 곤하게 자는 어린 머슴을 동정하여 입김으로나마 덥혀주려는듯 하다.

행복의 꽃수레(조각)



행복의 꽃수레(조각 1989년)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 집체작

조각 《행복의 꽃수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광복거리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정문앞에 세운 야외조각이다.

조각은 한쌍의 룡마를 메운 꽃수레에 여러명의 어린이들이 타고 구름우로 훨훨 날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술에 대한 일반적지식

미술의 개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술은 현실에 대한 조형적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직관예술이다.》

미술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흔히 그림이 머리속에 떠오를수 있다. 그러나 그림만이 미술이 아니다. 그림은 조선화나 유화와 같이 평면으로 된 화면에 그리는 회화로서 미술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미술이라고 할 때에는 담고있는 내용과 범위가 매우 넓다. 조국산천의 아름다운 경치와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모습을 현실처럼 생동하게 그린 그림들, 위훈 떨친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조각상들과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정서깊게 하는 동물조각들, 실물처럼 생동한 갖가지 상품들의 도안들과 멋들어진 자동차, 승용차도안들, 방안들에 걸린 고상한 서예족자와 아기자기한 도자기꽃병, 읽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하는 재미나는 그림책들과 사람들을 기적과 혁신에로 호소하는 힘있는 선전화작품들이 미술에 속한다.

그러면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이란 현실에 대한 조형적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예술의 한 종류를 말한다.

미술은 현실을 조형적으로 그려내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이모저모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며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교양한다.

미술을 가리켜 직관예술, 조형예술, 공간예술이라고 한다.



보통강풍경(유화 1970년) 전우근 작

미술이 직관예술이라는것은 눈으로 보는 예술이라는 뜻이다. 미술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현상이 직접 그려지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눈을 통하여 전달된다. 그러므로 눈이 없이는 그려낼수도 없고 그린것을 볼수도 없다.

유화 《보통강풍경》은 화가가 보통강반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면서 그린 작품인데 사람들은 이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면서 높은 예술성을 느끼게 된다.

미술이 조형예술이라는것은 일정한 모양을 창조하는 예술이라는 뜻이다.

미술은 여러가지 사물현상의 겉모양을 그리거나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창조한다. 이것을 조형성이라고 한다. 조형성을 떠난 미술작품이란 있을수 없다.

유화 《보통강풍경》에서는 사람, 천리마동상, 다리, 나무 등의 겉모양을 그려서 나타냈으며 공예 《해바라기무늬꽃병》과 조각 《1211고지영웅들》은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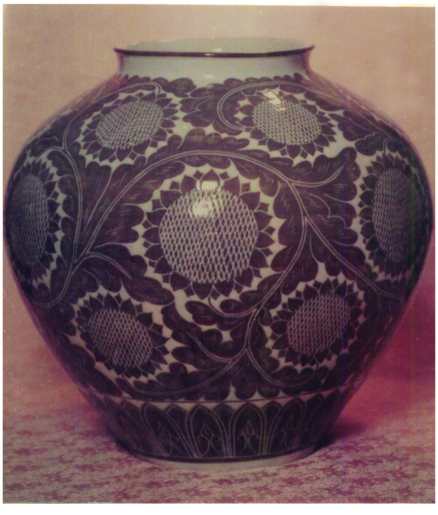
미술이 공간예술이라는것은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예술이라는 뜻이다.

그림에서는 길이와 너비를 가진 평면우에 형상을 창조하므로 그림 그자체가 공간을 차지할뿐아니라 그림안에 공간세계가 그려진다. 그리고 조각은 그자체가 공간을 차지한다.



1211고지영웅들(조각 1993년) 집체작

조각 《1211고지영웅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의 넓은 야외공간을, 공예 《해바라기무늬꽃병》은 그것을 놓는 방안의 공간을 차지한다.



해바라기무늬꽃병(공예 1968년)
리재문, 김성택 작

미술의 특성

미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다른 예술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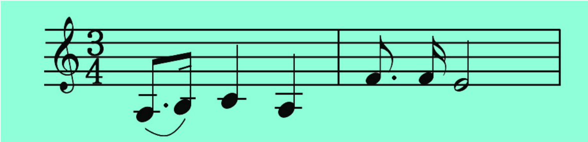
미술의 특성은 우선 자기의 고유한 형상수단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예술에는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술품이 어떤 사상과 감정을 형상하고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것을 그려내는 수단과 방법은 서로 다르다. 문학은 언어(글)로 음악은 소리(선률)로, 무용은 률동으로 형상을 창조한다.

미술도 역시 자기의 형상수단을 가지고있다. 선, 색, 명암, 덩어리 등이 바로 미술의 형상수단이다. 이러한 형상수단을 **예술언어**라고 한다.

어떤 형상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예술언어들이 서로 어울리고 째여야 한다.

음악의 경우를 보자. 옆에 있는 악보는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의 한 부분인데 서로 다른 높이와 길이를 가진 소리가 어울리고 째여서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끝까지 지켜가려는 굳은 결의를 표현하였다.





포항의 8용사(조선화 1997년) 리동건외 3명 작

조선화 《포항의 8용사》에서는 선, 색, 명암과 같은 미술언어들이 어울리고 째여서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놈들과의 최후결전에로 나가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조선화 《재봉대원들》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언제 적들이 덤벼들지 모르는 긴박한 정황속에서 군복짓기전투를 긴장하게 벌려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 재봉대원들의 투쟁모습을 힘있는 선과 간결한 색채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재봉대원들(조선화 1961년) 주귀화 작

이처럼 미술은 자기의 고유한 형상수단으로 현실을 그려낸다.

미술의 특성은 다음으로 예술적형상이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구체적이라는데 있다.

미술은 직접 눈으로 보는 예술이다. 문학이나 음악예술에 창조된 형상은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 그 형상이 하도 생동하면 마치도 눈앞에 보이는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실지로 보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글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과정에 일어난 표상일따름이다. 그러나 미술작품에 창조된 형상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미술의 특성은 다음으로 형상이 함축되고 집중화된다는데 있다.

모든 예술형태들은 이야기를 벌려놓지 않고 하나를 그려도 깊이있게 그려 사람들이 많은것을 느끼게 한다.

이것을 형상의 함축성과 집중성이라고 한다.

미술은 어느 예술보다도 형상이 함축되고 집중화되여있다.

그것은 미술이 다른 예술보다도 형상이 한순간으로 화면이나 공간속에 고착되기때문이다.

문학이나 무용, 연극 등은 생활의 흐름을 여러 장면이나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보여주지만 그림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 화면에, 조각은 공간상에 고착된다. 그리하여 그 형상이 비록 움직이지는 않지만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미술에서는 함축되고 집중화된 형상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도 보여주고 소리도 느끼게 하며 주위환경도 알수 있게 한다.

미술의 특성은 다음으로 조형미가 풍부하다는데 있다.

예술에는 현실에 있는 아름다운 사물현상이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반영된다.

미술은 그 어느 예술보다도 풍부한 조형미를 창조한다.

다른 예술도 현실을 아름답게 그리느라고는 하지만 미술처럼 직관적으로 생동하고 풍부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미술이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불리우는것이다.

미술은 풍부한 조형미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며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술(중학교 제1학년용)

제2판

집 필 **부교수 김성호, 부교수 리국진, 김병오, 안영수, 고용국, 박기서, 리건일, 장영남, 홍파**

심 사 **심의위원회**

편집 및 콤퓨터편성 **리영환**

장 정 **서경애** 교 정 **엄룡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90(2001)년 12월 11일

2판인쇄 주체101(2012)년 5월 14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5월 24일

교-12-보-670 값 20 원